

초기 한국교회의 경전과 신앙공동체¹⁾

왕대일*

1. 경전을 깨치는 사람들

한국교회는 스스로 경전을 깨우친 사람들로 출발하였다. 1885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기 전 복음이 번역, 반포되었으며 말씀의 뜻을 깨닫고 기독교 신앙으로 스스로 개종한 이들이 한국교회의 첫 장을 열었다. 로스(John Ross, 羅約翰, 1842-1915년)와 이수정(李樹廷, Rijutei, 1842?-1887년)이 한국교회 초창기의 번역자들에 속한다면,²⁾ 이응찬(李應贊), 서상륜(徐相崙), 백홍준(白鴻俊), 이성하(李

* 감신대 교수, 구약학

- 1) 본 논문은 2007년 5월 25-26일 한국구약학회, 한국복음주의구약학회, 한국신약학회,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신학정보연구원 주관하여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성서학 학술 심포지엄, 평양대부흥운동의 성경신학적 조명-회개와 갱신”에서 분과 모임에서 발표한 논문인 “한국교회 초기 부흥운동에서 읽는 경전과 신앙공동체”를 요약, 수정한 글이다.
- 2) 로스는 1872년 8월 스코트랜드 연합장로교회의 중국 선교사로 만주에 왔다가 이응찬, 서상륜 등 서북상인들과 함께 1878년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을 번역하여 1882년 3월 심양 문광서원에서 최초의 한글성경인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를, 5월에는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를, 1884년 3월에는 『예수성교성서 맞대복음』과 『예수성교성서 말코복음』을 출간하는 등 복음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이수정은 수신사 박영효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가 1883년 성경을 읽고 기독교 신앙을 깨우쳐 미국 선교사 녹스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 1883년 6월 한문 문리(文理) 성경에다가 이두식 토(吐)를 붙이는 “현토한한(懸吐漢韓)신역성경”을 번역하여 1884년 4월 『新約聖書馬太傳』 등 사복음서

成夏) 등은 한국 땅에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초석을 놓은 권서인(勸書人, colporteur)들이었다. 특히 1870년대 말 세례를 받은 이응찬, 백홍준 등의 서북 출신의 상인들은 1882년 9월 수신사(修信使) 박영효(朴泳孝)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간 양반 관료 이수정과 함께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할 최초의 개신교도들이다. 그들은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오기를 앉아서 기다리던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독교 경전을 읽고 복음을 수용하면서 기독교 신앙공동체를 일구었던, 그야말로 복음의 씨가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 “성령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추수를 약속하는” 한국교회의 첫 열매들이었다.³⁾

이응찬, 서상륜, 백홍준 등은 모두 한문에 능통했던 상인들이었다. 그들은 기독교 교리를 배우거나 세례를 받기 위해 만주에서 선교사 로스와 그 동료 매킨타이어(John McIntyre, 1837-1905년)를 찾아갔다가 번역자로 고용되어 즐거이 성경 번역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다. 1879년 매킨타이어에게 세례를 받았던 백홍준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들은 “복음서를 정독한 다음 공자(孔子)와 그리스도를 구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본질적인 성격을 의심할 여지없이 이해하고 있었다.”⁴⁾ 그랬기에 그들은

와 사도행전의 漢韓聖經을 일본에서 출간하고, 1885년 2월에는 우리말 번역인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를 출간하는 등 성경을 번역하면서 선교사들의 우리말 학습을 도왔다. 바로 이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가 일본에서 내환을 준비하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손에 들려지게 된 성경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김승태, 류대열,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조직, 성장과 수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23-119, 120-176, 271-272를 보라.

3) 김승태, 류대열,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46-57, 126, 154-157.

4) “Mr. McIntyre’s Report,” *The 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 (1880, Jul. 1), 278; 김승태, 류대열,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41에서

『예수성교본』을 들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권서로 전도 활동에 매진하면서 한국교회에 초석을 놓는 선구자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은 돈이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선교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기독교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선교사를 찾아갔으며,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여러 해 동안 성경 번역에 전념하였다. 1870년대 한국 사회가 ‘양인’(洋人)을 도와주다가 발각된 자를 사형으로 다스리던 시절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헌신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 그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압록강을 건너 서양 선교사의 한국어 선생으로, 성경 번역 사업의 조력자로, 다시 성경 말씀을 품에 품고 압록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와 그것을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하며 반포하던 자들이었다. 이런 자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는 그 역사의 첫걸음을 토착적 신앙공동체에 내디딜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 개신교의 첫 열매였고, 성경과 성례(세례)가 어우러진 한국교회의 출발이었다. 언더우드가 1887년 11월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의주를 방문하고 나서 전한 보고서가 그 점을 단적으로 설명한다.

북부 지방 전역에 걸쳐, 중국에서 이루어진 광범위한 씨 뿌림과, 반포된 책들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고, 그런 방식의 효과적인 사역의 기회가 그 어느 곳보다 많아 보였다. 따라서 타 지방에서도 본토인들이 책들을 팔고 반포하기 위해서 고용되어 있었지만, 선교사들의 노력이 주로 이곳으로 모아졌고, 그들의 여행도 거의 북쪽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유망한 사역이 의주에서 시작되었는데, 한번은 주변 마을과 군대에서 세례 받고 입교하기를 원하는 1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모여 들었다.⁵⁾

중인.

5) H. G. Underwood,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1908), 137-138.

언더우드가 1887년 말 의주를 찾아갔을 때 그 주변에는 이미 1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만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평안도로 들어가는 길, 일본에서 남해를 지나 부산과 그 밖의 남부 지방으로 들어가는 길, 황해를 거쳐 제물포를 비롯한 서해안 지방에 이르는 길 등은 1870년대 말과 1880년대 초 한 반도에 “빛의 서적”들이 유입되던 통로이었다. 이들 권서인의 반포 활동으로 1882년부터 집안과 통화를 중심으로 한 서간도 한인촌에, 의주, 소래(松川), 평양, 원산, 서울, 제물포, 대구 등지에, 기독교 신앙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다.⁶⁾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서양 선교사가 오기 전 이미 한국인의 손에 의해 번역, 출판, 반포된 성경을 지닌 신앙공동체이었던 것이다.

한국교회의 출발에서 엿볼 수 있는 이 같은 토착적 신앙 사건은 이수정의 개종에서도 드러난다. 평안도 출신 청년으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던 상인이었던 이용찬 등과는 달리 이수정은 기호 지방에서 주로 활동한 양반 관료이었다. 임오군란(壬午軍亂, 1882년 7월)의 뒤 처리를 위해 1882년 수신사 박영효를 수행하여 일본 요코하마로 건너간 이수정은 농학자 쓰다 센(津田 仙)을 만난 뒤 한문 신약전서한 권을 얻게 된다. 이수정은 매일 그 책을 읽으며 기독교 신앙의 이치를 파고들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수정은 1883년 4월 20일 노월정교회(현 芝露教會)에서 야스카와 도루(安川亨) 목사를 증인 삼아 미국인 선교사 녹스(G. W. Knox)에게 세례를 받게 된다. 그 뒤 이수정은 1883년 5월 11일 도쿄에서 열린 제 3회 일본 전국 기독교도 대 친목회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였다.

신약 성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저도 여기에 대해 정성을 다해 연구하고 예수께서 지극히 힘써 깨우쳐 주시어 이를 특별히 계시하셨음을

6) 김승태, 류대열,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105-119.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릇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神人相感之理)를 가리킴이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하나님의 감동은 믿는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고는 얻을 수 없으며 한낱 심지만 가지고는 등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불타지 않을 때는 끝내 빛을 볼 수 없으며 믿지 않고서는 끝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7)

이수정이 남긴 신앙 고백문은 한문으로 575자로 되어 있으며, 그가 요한복음 14-15장에 근거하여 신앙의 이치를 터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양반 관리 이수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말로 옮기는 번역자의 길을 걷게 된다.⁸⁾

-
- 7) 이덕주, 조이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 (서울: 한들, 1997), 20-24, 특히 22.
- 8) 김승태, 류대열,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46-57, 126, 154-157. 이수정은 1884년 4월 10일 경 번역해서 1885년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를 펴낼 때 1882년에 간행된 로스의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등을 참조하였다. 이수정은 로스역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로스역이 평안도 방언을 사용한 순 한글 성경이었기 때문이다. 로스역은 『예수성교 요안내복음전서』(1882년), 『예수성교성서 맛대복음』(1884년), 『예수성교성서 말코복음』(1884년)을 비롯해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인 『예수성교전서』(1887년) 등인데 이를 통칭 ‘예수성교본’이라고도 부른다. 이수정의 번역은 언해(諺解)라고는 하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국한문 혼용 성경이다. 한문에 익숙한 지식층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수정의 번역 저본이 한문 성경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반면 로스 역으로 거론되는 ‘예수성교본’은 민중을 대상으로 한 순 한글 번역본이다. 로스역의 경우 한국어 교본(Corean Primer)을 만든 다음 한문 성경에서 번역을 시작했지만 그리스어 성경을 기준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본문의 뜻과 일치하면서도 한국어 어법에도 맞는 수정을 거쳐 인쇄하였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도 한국어를 익히고 주체적으로 성서번역을 위한 ‘상임위원회’(The Committee for Translating the Bible into Korean Language)를 1887년에 조직할 때 저본으로 삼아 수정한 것은 이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한국교회 초기(1903-1909년)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선교사들이 씨를 뿌리기도 전에 김을 매거나 ‘이른 추수’로 분주하였던 것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과 이응찬, 서상륜이나 이수정 같은 주체적인 한국인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초기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경전을 읽고, 경전을 깨우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경전을 가르치던 전도자들이었다. 그런 자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는 1903년 원산에서 1907년 평양으로 치닫는 대부흥운동의 비등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2. 경전과 말씀, 말씀과 경전

경전은 신앙공동체의 믿음과 삶을 규정하는 자(尺), 저울, 기준이다.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경전은 성경이다. 한국교회의 초기 대부흥운동은 성경 말씀이라는 저울 위에 자기 삶을 달아보는 자들이 이끌었다. 로버트 하디(Robert A. Hardie, 河鯉泳, 1865-1949년)와 길선주(吉善宙, 1869-1935년), 하디와 길선주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놀랍도록 변화된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운동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 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을 촉발시킨 인물로 1903년 원산의 하디를, 한국교회의 대부흥을 주도했던 지도자로 1907년 평양의 길선주를 꼽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수정 역이었다.

- 9) 예를 들어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은 책의 제1부를 하디를 중심으로 한 1903-1906년의 원산부흥운동(25-204), 책의 제2부를 길선주를 부각시킨 1907-1908년의 평양대부흥운동(205-542), 책의 제3부를 1909-1910년의 백만인 구령운동(543-656)에 할애하고 있다. 1903-1909년에 이르는 부흥운동 기간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하디나 길선주 외에도 여럿이다. 예를 들어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저다인(J. L. Gardine), 한국을 방문한 순회 선교사 프란손(F. Franson), 하

있지 않다. 하디와 길전주가 그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자기 가슴을 파고드는 살아 있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민하게 들었기 때문이다.¹⁰⁾ 하디의 “1903년 선교 보고”(R. A. Hardie’s Report)는 하디가 얼마나 자신의 선교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었는지 소상하게 보여준다.¹¹⁾ 그는 지난 해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보니 무게가 모자랐다.”(단 5:25-27)고 진솔한 평가로 말문을 연다. 그러면서 그런 실패가 자신에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다.

지난해는 여러 면에서 저의 한국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사역하면서 안절부절 못할 때 영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점점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사역에서 실패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중국 남 감리회의 선교회에서 온 한 방문자의 제안에 따라 지난달에 열린 일주일간의 성경공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의 영적 능력의 부족에 실패의 원인이 숨어 있었으며, 아무리 열심히

워드 존스톤(H. A. Johnston) 등이 있으며, 한국인으로는 1906년부터 남감리교의 본처 사역자(local preacher)였던 정춘수, 1908년 성결교회(복음전도관)의 정빈 같은 부흥사들이 있다.

- 10) 왕대일,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빛나게 하소서-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대한 구약학적 평가,” 영적 대각성 100주년 기념 학술 연구회 편, 『각성·갱신·부흥』(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2006), 117-168. 특히 130-134.
- 11) R. A. Hardie, “R. A. Hardie’s Report,” *Minutes of the Seven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3*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3), 25-28. 하디는 그리 길지 않은 자신의 1903년 선교 보고에 모두 6회 이상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나 거론하고 있다.

힘껏 일해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 하지 않으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¹²⁾

하디는 자신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눅 4:6)는 말씀대로 사역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진행된 성경공부에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행 2:33)고 고백한다. 하디는 결코 자신의 선교 보고를 사무적인 행사나 통계치의 나열로 꾸며놓지 않았다. 그의 선교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려는 영성 일기와도 같다. 성령의 임재에 붙들렸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서 그가 한 말도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짚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 의 기쁨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사 55:12-13)고 하신 말씀이다.¹³⁾ 비록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은 특정 지역의 선교 현황을 보고할 때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계 3:4)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발하는 빛”(사 60:1)은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희망을 주기에 주저치 않는다.¹⁴⁾

하디의 보고서는 성경 말씀은 인용하지만 그 출처는 표기하고 있

12) Ibid., 26.

13) Ibid.

14) Ibid., 27. 선교 사역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하는 노력은 하디의 모든 보고서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1904년도 보고는 1903년의 보고보다 긴데, 거기에서도 7회 이상(창 50:20; 마 1:21; 요일 3:9; 히 6:10; 수 14:9; 요 16:24; 수 14:9)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거론하고 있다. R. A. Hardie, “R. A. Hardie’s Report,” *Minutes of the Eigh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4*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4), 23-29.

지 않다. 아마 하디가 선교 보고서를 격한 마음으로 써내려가다가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인용했던 결과가 아닐까 추정해본다. 평신도 의료 선교사 출신이었던 하디가 주한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강사로 초빙을 받았던 것도 그의 이런 실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디, 그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 놓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기록된 말씀을 살아 있는 말씀으로 체험하고 재현하는 일은 길선주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1907년 평양대부흥에 대한 선교사들의 감격적인 보고는 모두 길선주의 설교와 기도 능력을 거론한다.

1897년에 세례받은 길선주는 한국교회의 가장 달변의 설교자이며 가장 위대한 영적 능력을 지닌 자다...그는 한국의 ‘스펠전’으로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장대현교회에서 1,500명의 회중에게 설교하고, 사경회에서 가르치고, 서울이나 다른 지방 교회에 가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¹⁵⁾

제임스 게일(James Gale)은 길선주가 선교사들보다 영적인 체험에서 훨씬 더 심오하다고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¹⁶⁾ 길선주가

15) Samuel A. Moffett, “An Educated Ministry in Korea,” *The Interior*, XXXVIII-1916 (February 14, 1907), 1-4, 특히 3, “주일 오후 예배 때 길선주 장로가 설교했는데 매우 생생한 예화로 설교를 마쳤다...”; “Margaret Best to A. J. Brown, March 12, 1907”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of USA, Microfilm reel #281, vol. 237, vol. #52* “서울에 있는 한국인 여자들도 길 장로의 설교와 기도를 통해 큰 축복을 받았으며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참조, Graham Lee,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Korea Mission Field* 3 (March, 1907), 33-37, 특히, 36-37.

16) “...빛이 그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점점 시력을 잃었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마치 바울과 같이 그는 하나님과만 함께 있기 위해 잠시 동안 눈에 보이는 세계와 격리되었고, 정신을 혼란시키는 세력에서 해방된 듯했다...” James S. Gale, “Elder Keel,”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하나님 임재의 다락방으로 들어오자 하나님이 그의 설교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변화시켰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길선주가 무슨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였는지 자세한 기록(보고서)이 남아 있지 않다.¹⁷⁾ 다만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 약 10년간 도교에 심취하던 자였지만,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난 뒤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며, 그 후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을 발견하여 죄 사함을 받아 마음이 편해지는 체험을 하였다고만 소개한다.¹⁸⁾ 이런 단편적인 정보 속에서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드디어 1907년 1월 첫 주가 되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국기도 주간 동안에 분명히 복을 주시리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마지막 여덟째 날을 맞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능력의 특별한 임재는 없었다. 그 주일 저녁에 1,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장대현교회에 모였다...길선주 정로가 일어서서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모두가 깜짝 놀랐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제 친구 하나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집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길 장로, 나는 이제 곧 죽을 몸이야, 자네가 내 일을 맡아 주게. 내 재산을 관리해 주면 좋겠네. 아내는 무능하니 말일세.” 저는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그렇게 하겠네.” 그 후 저는 그의 부인의 재산을 관리했지만, 부인의 돈 100달러를 빼돌려 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내일 아침 100달러를 그 부인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¹⁹⁾

(July, 1907), 493-495.

- 17)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운동기에 해당되는 자료 가운데 길선주가 남긴 글은 “성신을 충만히 밧을 방책,” 『그리스도 신문』 10:10 (1906. 3. 8.), 229-230; “말하는 기계와 앵무새라,” 『그리스도 신문』 10:6 (1906. 2. 15.), 157-158; 『혜타론』 (대한성교서회, 1904년), 『만사성취』 (평양: 광명서관, 1916) 등이 있다. 길선주에 대한 평가로 초기 자료로는 김인서, “영계선생소전,” 『신앙생활』 (1932. 12.)을 꼽을 수 있다.
- 18) 여기에 대해서는 옥성득, “평양 대부흥 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한국 기독교와 역사』 25 (2006. 9.), 57-95를 보라.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²⁰⁾ 길선주가 자신을 아간(수 7:1)과 같다고 털어놓았다는 것은 그가 아간이 누구인지, 아간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길선주가 자신의 잘못을 아간의 죄와 동일시하는 지평에서 죄를 고백할 수 있었기에 길선주의 설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이끌어냈다. 길선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에 새겼던 사람이었다. 누가 부흥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에 새기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

하디와 길선주가 체험한 말씀 사건은 구약의 요시아(주전 640-609년)에게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앗시리아에 예속된 채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비롯한 온갖 종류의 종교적 매음에 빠져 있었다(왕하 16:10-16; 21:1-9). 야웨 신앙의 이방 종교화, 또는 이방 종교적인 야웨 신앙(paganistic Yahwism)이 국가의 승인과 비호 아래 거리낌 없이 난무하고 있었다. 요시아 왕이 주도한 종교 개혁(왕하 23:1-25; 대하 34:1-35:27)은 이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관습을 개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스라엘 신앙에서 부흥이란 본디 각성(awakening)의 열매였음을 시사한다.

19) Jonathan Goforth, *When the Spirit's Fire Swept Korea* (Grand Rapids: MI.: Zondervan, 1943), 7-8. 고포스 목사는 중국 허난(河南)성에서 사역하던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였다. 그는 1907년 한국을 방문하여 부흥의 현장을 목격한 다음 그것을 만주 지역 교회에 전한 사람이다. 이 글은 1917년경에 탈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길선주의 이 설교가 한국 선교사들의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다. 고포스는 길선주가 주일 저녁에 설교했고, 그 때 회개와 성령강림이 일어났다고 잘못 기록해 놓았다. 하지만 길선주는 1월 17일 화요일 저녁 집회 때 설교했고, 그 화요일 밤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참회 고백이 이어졌다.

20) Jonathan Goforth, *When the Spirit's Fire Swept Korea*, 19-20.

부흥은 회개와 고백의 산물이다. 왕에게서 시작된 영적 각성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야웨 하나님만을 섬겨야겠다고 다짐하게 하는 부흥으로 확산되게 되었다(왕하 23:22-23). 이런 각성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요시아가 토라의 가르침을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었기에 주전 7세기 온 유다 공동체는 야웨 하나님을 주님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²¹⁾ 기록된 말씀을 읽으며/들으며 그것을 마음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겼던 것이다. 부흥은 바로 이런 역사(役事)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부흥 사역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요시아가 그랬고, 하디가 그랬으며, 길선주가 그랬으며, 대부흥운동기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3. 사경(査經)하는 교회, 암송(暗誦)하는 교인

한국교회의 초창기 당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였던 교인들은 교회 형태를 갖추기 전에 이미 ‘몇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을 이루었다. 이 때 성경공부는 성경의 각 책에 대한 개론적 설명이 있는 후 서당에서 경전을 공부하던 방식대로 한절 한절씩 읽고 질문하고 토론하며 암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경회는 본디 말씀 중심의 개신교 신앙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 땅에서의 그 터전은 한국 전통의 서당식 경전 공부 전통에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윤치호가 남긴 신앙고백(1887년 3월 23일)이 바로 이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순결하고 죄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

21) 왕대일,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빛나게 하소서,” 131-132.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도 유교의 사서(四書)를 읽었으며 그 속에서 훌륭한 교훈들을 발견했으나 누구도 그 말씀에 매인 바 없으며 그 가르침들도 영혼의 요청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기에 거기에서 는 제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²²⁾

윤치호의 고백 속에는 유교의 사서삼경을 읽던 관습으로 성경을 대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배어 있다. 글을 아는 자만 성경을 암송했던 것은 아니다. 글을 몰랐던 자들도 교인이 되면 으레 성경 구절을 암송하였다.²³⁾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장은 사경회였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모두 사경회로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거기 모인 회중들이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 물론 1890년에 채택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한국교회가 초기 대부흥운동 기간 동안 사경회 중심의 부흥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²⁴⁾ 그러나 그보다는 한국의 교인들이 경전 공부에 특별히 열심을 냈다는 데서 성경 반포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이나 사경회 중심의 부흥운동이 확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895년 한국에 와서 성경 사업(The British Foreign Bible Society

22) 이덕주, 조이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 26. 윤치호는 한국 최초의 남감리교인이다. 그가 1887년 4월 3일 세례받기 전에 고백한 신앙고백이 *The Gospel in All Lands* (1887.6.)라는 선교 잡지에 영어로 게재되어 있다.

23) 한 마을에서 25명이 세례를 받았을 때 각 사람이 100구절 이상의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보고가 이 점을 단적으로 일깨워준다. Jonathan Goforth, *When the Spirit's Fire Swept Korea*, 27-28.

24) T. Stanley Soltau, *Korea The Hermit Nation and Its Response to Christianity* (New York: World Dominion Press, 1932), 94; R. E. Shearer,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 (Grand Rapids: Eerdmans, 1966), 54.

만주 한국 임시 총무)에 전력하였던 켄뮤어(Alexander Kenmure)가 1901년에 작성한 보고서가 그런 열기를 단적으로 확인해 준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쇄된 말씀을 한국 땅에서 풍성히 사용하고 계신다...말씀은 읽혀지고 있고 암송되고 있다. 말씀은 이 생기 없고 영감이 사라진 백성들의 피와 뼈와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으며, 그들을 반드시 새로운 남녀로 만들 것이다.²⁵⁾

켄뮤어의 보고를 들으며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말씀(겔 37:5-6)을 떠올리는 것은 그리 큰 무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성령이 전하시는 새 소식이 죽어가던 이 땅의 백성들을 새 사람으로 살려내신 것이다. 이 같은 뜨거운 열기는 1903년 5월 선교사 노블 부인의 글(“이 사경회란 뜻은 세 가지 있으니”)에서도 확인하게 된다.²⁶⁾

초창기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성경을 상고함으로 영생 얻는 것을 찾기 위해...예수께서 하신 명령을 깨닫기 위해...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사경회로 모였다. 한국교회의 초기 대부흥운동기에 성경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이유는 한국교회가 그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²⁷⁾ 한국교회가 ‘성서공회주일’(Bible Sunday)을 본격적으로 지키기

25) *The British Foreign Bible Society Annual Report* (1901), 291. 이하 BFBSAR로 표기함, 김승태, 류대열,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263.

26) 「신학월보」 3:5 (1903), 204-205.

27) H. G. Underwood, “The Growth of the Church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February 1908), 100-101; H. G. Underwood,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1908),

시작한 것도 1900년부터이다.²⁸⁾ 예컨대 초기 한국교회 교인들의 성경수요는 1906년에 이르러는 폭발적으로 급증한다. 1896년에 연간 300권이던 수준에서 10년 후인 1906년에는 127,269권으로 늘었고, 1915에는 826,635권에 달하게 된다.²⁹⁾ 1905년의 하반기에 출판한 복음서와 사도행전 5만 부는 이듬해 봄에 완전히 매진되고 마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성경책을 찍어내지 못하는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이란 거슨 하나님의 자현(自顯)하신 것과 및 당신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남을 온전히 갖추어 기록한 문서이니라 이 성경은 종교의 기초가 될뿐더러 또한 교인의 신덕(信德)의 정경이니 그 품질(品質)이 무어시며 그 권력(權力)이 엇더한지 묻져 알아볼지라 성경으로 말하면 세가지 생각할 일이 있스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인의게 묵시(默示)함으로 나타내어 주시는 도리(道理)의 문서니라 하나님께서 성현(聖賢)의 마음을 감동(感動)하여 성서를 짓게 하셨스니 성경은 천조물(天造物)이니라 성경은 교인의 신덕(信德)의 룰레(律例)이니 개대 그리스도 종교의 온갖 교리와 교훈을 성경으로 결정하신니라 이 세가지 분간(分擘)으로 세가지 새언스(言辭)가 생겼스니 一은 묵시오 二는 감동시오 三은 정경(正經)이니라³⁰⁾

성경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

148. 예를 들어 교인 수(학습 교인+세례 교인)는 1905년의 39,897명에서 1907년에는 118,264명으로 3배 가량 증대하였고, 교회 수는 321개에서 642개로 2배 가량 늘어났으며 현금 액수의 경우 \$13,528.67에서 1907년에는 \$53,197.85로 4배 가량 급등하였다.

28) BFBS AR (1900), 277; BFBS AR (1901), 286-287; BFBS AR (1902), 291.

29) 김승태, 류대열,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324, 359.

30) 「신학월보」 5:2 (1907), 504.

하여 나타난” 것을 기록한 문서이다. “사람이 기록하였지만 사람의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자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즉,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록한” 책이다. 이 성경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다. 성경은 “천조물”(天造物), 곧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렇기에 한반도에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요긴한 것은 성경”이다.

초기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성경 말씀에 통달하기까지 공부하라고 타이르고 있다. 만약 “강론함이 밝지 못하고 해석함이 오착되며 어려운 구절을 물었을 때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도를 수치스럽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³¹⁾ 이때 중요한 것은 “성신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일이다. 그래야 힘 있는 전도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막 1:17). 한국교회의 초창기 기록을 담고 있는 정기간행물 「신학월보」에 실렸던 “만국주일공과”나 「그리스도 신문」에 수록된 “성경강론”도 한국교회가 그 초창기부터 조직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³²⁾ 중요한 것은 이 때 반드시 외워야 할 말씀을 표기하고 있다

31) 「신학월보」 4:4 (1904), 168.

32) 「신학월보」에 실린 “만국주일공과”는 공과 단원 소개→ 날짜→ 문제(주제)→ 성경구절→ 요지(요절)→ 성경 본문 소개→ 주석→ 묻는 말→ “요지를 외우라”는 주문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학월보」 4:10 (1904)에 실린(446-450) “만국주일공과” 제3부 제오과(10월 2일)의 주제는 오므리와 아합, 성경은 열왕기전서(열왕기 상) 16:22-33, 요지(요절)는 “올흠 나라를 놉히되 오직 죄는 아모 백성이던지 부그러히 하나니라”(잠언 14:34)에 이어 성경 본문이 소개되고 주석이 이어진 뒤 13가지 정도 묻는 말이 나오고 “요지를 외우라”는 주문으로 마친다. 묻는 말은 공과의 내용, 즉 성경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는데, 가령 “○옴으리는 엇던님군의아들이뇨 ○옴으리가몇해동안에 님군이되엇나뇨 ○성음을어나 곳에건축하고일흠을무엇서라호엇더뇨…”같은 질문이다.

또 「그리스도 신문」 5:35 (1901. 8. 29.)에 실린(270-280) “성경 신약 강론회.” “성경구약강론회”는 모임→ 날짜→ 공과 단원 소개→ 외울 말씀

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심장에 새겨지기를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전은 암송하며 “공부해야” 한다.³³⁾ 그래야 경전은 신앙공동체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도를 좇을 때 교회는 살아있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다. 경전은 결코 오래된 옛 기록이 아니다. 경전은 신앙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늘 도전해오는 말씀이다. 그런 경전 암송의 열정에서 한국교회는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 식의 경전 공부를 체험하고 있었다.

해석 순으로 게재되고 있다. 즉, 신약강론회는 양력 9월 22일, 음력 8월 10일에 모이고, 공과는 마태 제38과(22:15-22)이며, 외울 말씀은 야고보 1:13-15이다. 이어서 성경 본문이 실리고, 그에 따른 해석이 소개되고 있다. 구약강론회도 양력 9월 22일, 음력 8월 10일에 모이고, 공과는 창세기 제 38과이고, 성경 본문은 창세기 24장 1-14절이다. 구약의 경우 외울 말씀은 빠져 있다. 이런 신구약 강론회가 1906-1907년에 가서는 “성경강론회”란 이름으로 바뀌면서 공과 단원 소개→ 날짜→ 문제(성경 본문과 주제 소개)→ 요지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 신문」 10:39 (1906. 9. 27.)에 실린 기사(917)는 다음과 같다. “◎기도회. 양력은 10월 17일, 음력은 8월 30일. ‘자유 한 자에게 복 있음.’ 마 5:7; 막 11:24-26; 딤후 1:16-18. ◎성경강론회. 양력은 10월 14일, 음력은 8월 27일. ○제4부 제2과 ‘예수께서 기도함을 가르치심.’ 눅 11:1-3. 요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더욱 성신으로써 구하는 이를 주시리라 하시더라.’ 눅 11:13.” 이런 형식은 「그리스도 신문」이 1907년 가을 남북 감리교회 장로교회 총회에서 그 이름을 「예수교신보」로 개명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33) 「신학월보」 4:10 (1904), 427-431에 실린 최병헌의 글 “공부를부지러니 할때”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즉 우리가 불가불 신구학문을 겸비하게 배화야 되려시오 또한 이 세상에 유익한 학문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령혼상에 유익한 성서를 공부하야 흠리치와 수세주의 진병활שו로 령혼의 기갈을 면케하면 턴국락원에 무궁한 복을 받을지니 우리는 금생래생에 령혼육신을 위하야 량선훈공부를힘쓸지어다 아멘.”

4. 경학(經學)으로서의 해석

경전은 교회를 해석한다. 경전은 교회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준다. 경전이 있기에 신앙공동체가 형성된다. 초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경전을 읽었다. 성경을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³⁴⁾ 초기 한국교회의 경전 해석에는 두 지평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하나는 초기 한국교회를 이끌던 선교사들의 성서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초창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해석이다. 한국 땅을 찾은 선교사들은 대체로 복음주의, 경건주의, 청교도 신앙, 웨슬리적 영성에 입각하여 성서를 해석하였다.³⁵⁾ 1885년부터 1909년까지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 땅에서 활동하였던 선교사들의 출신 신학교를 살펴보면 이런 이해에 수긍이 간다.³⁶⁾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도 19세기 미국교회의 종교 대

34) R. A. Harrisville and W. Sundberg, *The Bible in Modern Culture: B. Spinoza to B. Childs* (Grand Rapids: Eerdmans, 2002), 320-321.

35) 박명수, 『한국교회 부흥운동 연구』, 16-22; 이덕주,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48-77; G. L.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3rd ed.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80), 367.

36) 1885년부터 1909년까지 이 땅에서 활약한 장로교 선교사들은 대체로 프린스턴, 메코믹, 리치몬드 유니온, 파크대학, 무디 성경학원 등이다. 그러나 영향 면에서는 철저한 보수주의, 청교도적인 엄격성, 경건한 삶을 지켰던 메코믹 신학교가 가장 컸다.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을 역임한 마펫(S. A. Moffett)이나 오랫동안 이 학교 교수를 역임한 베어드(W. M. Baird), 리(G. Lee), 스왈른(W. Swallen), 아담스(J. E. Adams), 클라크(C. A. Clark)는 모두 메코믹 출신이다. 캐나다 출신 초기 한국 선교사였던 게일(J. S. Gale), 하디(R. A. Hardie), 펜윅(M. C. Fenwick) 등은 성경의 영감과 절대성,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이신칭의 등 보수적 복음주의 원리를 신앙고백으로 밝힌 학생운동 단체 출신이었다. 감리교 선교사들의 경우 드루, 스카릿 성경학교, 예즈버리 등이다. 그 중에서도 드루 신학교 출신이 가장 많았는데, 아펜젤러(H. G. Appenzeller)를 비롯하여 감리교

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었고, 초기 한국교회에 부흥운동을 불러일으켰던 하디도 무디(D. L. Moody) 식의 부흥 집회에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였다.³⁷⁾

초기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들의 성서 해석과 조우하면서 동양적 경학(經學)의 전통을 성경 공부에 접목시켰다.³⁸⁾ 경학은 처음에는 경전을 읽고, 그 다음에는 경전을 쓴 사람을 읽고, 마지막으로 경전을 읽는 사람을 읽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반복되는 학습은 읽기이다. 암송이다. 문답식 토론이다. 왜 경전을 읽었는가? 옛 전통을 살펴보기 위해서나 옛 선인들의 사상과 삶을 더듬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서 고전을 읽었다. 한국교회가 그 초창기부터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경(査經)하는 일에 힘썼던 이면에는 바로 이런 동양문화의 유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부흥운동기를 전후한 초기 한국교회의 기록에는 성서의 권위, 성서의 영감설 등과 관련된 어떤 논쟁도 없었다. 고등비평으로 대변

협성신학교 교장을 역임한 데밍(C. S. Deming), 신학교 교수로 활약한 노블(W. A. Noble), 스웨어러(W. C. Swearer) 등이 모두 드루 신학교 출신이었다. 성결교회의 뿌리가 된 동양선교회 소속이었던 카우만(C. E. Cowman)과 킬보른(E. A. Kilbourn)은 무디 성경학원 출신이었다. 이덕주,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57-66.

37) 하디의 부흥집회 방식에 대한 평가는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한국교회대부흥운동 1903-1908』(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28-29, 각주 11, 13을 보라.

38) 유학의 경전해석학과 성서 해석학의 만남이라는 지평에서 성서 해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노력은 김정우의 글에서도 만날 수 있다. 그는 다산 정약용이 기존의 성리학을 극복하면서 제시한 새로운 유교 경전의 해석학과 차일드로 대표되는 정경적 성서 해석을 비교, 검토,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전 해석’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우, “다산 정약용과 브레바드 S. 차일드의 유신론적 경전해석학 비교 연구,” 『宗教研究』 38 (2005. 봄), 61-92.

되는 서구 성서 해석학이 아직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교사들도 교리적, 해석학적 강론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성서를 잘 알게 할 수 있을까’라는 선교적인 차원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즉, 초창기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길을 찾기 위해, 도(道)를 닦기 위해(!) 경전을 읽었다. 성경은 배운 자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었다. 성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말씀이었다.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도를 깨닫는 기쁨을 얻었다. 이 때 성경 말씀을 경전으로 읽는 태도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본문의 과거형(또는 역사적) 의미가 아니라 본문이 그것을 읽은 사람들에게 오늘 무슨 의미를 주는지 찾는 노력이다. 물론 특정한 말씀을 대하면서 그 본문이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느냐(선포되었느냐)는 본문의 맥락이나 배경 등에 주의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거기에 오래, 길게 머물지는 않는다. 잠깐 본문의 역사적 맥락 등을 전달한 후에는 곧장 본문 구절을 해석하는(정확하게 말하면 적용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것은 본문의 역사적 의미보다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소리가 된다. 과거를 연구하기보다는 오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다. 가령 “단장할 것”(벧전 3:34), “본이 될 것”(딤후 4:12), “화목할 것”(고후 5:18-19)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한다.³⁹⁾ 선교사들의 교파로 나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가 될 것”을 촉구하는 논설도 요한복음 17장,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에베소서 4장 3절에 근거하여 촉구하고 있다.⁴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는 논설도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사도행전 15장 29절, 묵시록 2장 14-20절에 근거하여 주의 상과 마귀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말라고 주문한다.⁴¹⁾ 이처럼 성경 말씀은 말씀

39) 「그리스도 신문」 10:29 (1906. 7. 19.), 680-682, 682-683, 683-684.

40) 「그리스도 신문」 10:33 (1906. 8. 16.), 770-772.

의 방향을 일깨워주는 척도가 된다.

초기 한국교회는 구약을 읽을 때나 신약을 읽을 때 그 성경구절을 기독교 경전의 맥락에서 해석하였다. 그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락에서 새김질하였다. 구약에서 신약을 듣고,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확인하였다. 가령 마태복음 22장 1-14절의 혼인잔치 비유를 공부하면서 외울 말씀으로 다니엘 12장 3절(“지혜 있는 자는 하늘같이 환하게 비취고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의 있는 데로 돌려보낸 자는 별 같이 영원히 비취리라.”)을 꼽고 있다.⁴²⁾ 그리고 나서 성경 본문을 소개한 뒤 각 구절의 뜻을 밝히고 있다. 신약은 구약의 배경에서, 구약은 신약의 빛에서 읽은 것이다. 그 결과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해석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자손(유대인)에 대한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는 창세기 24장 1-14절을 해석하면서 하는 설명도 그런 경우를 드러낸다.

이삭의 아내 취하는 일은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얻는 모양이라(창 21:2).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산 모양이 된 후에 아내를 얻는 것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일로 만국 가운데 교회를 얻음과 같소. 이삭은 예수를 가르치고 늙은 종은 전도하는 우리를 가르치나이다. 구약 때에는

41) 「그리스도 신문」 10:37 (1906. 9. 13.), 877-878.

42) 여기에 인용된 다니엘 12:3은 「그리스도 신문」 5:34 (1901. 8. 21.), 270-271에 게재된 본문이다. 현재 우리가 읽는 개역성경의 다니엘 12:7(“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과 비교할 때 개역의 본문이 구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하늘 같이 환하게 비취고”의 경우 개역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는 한자어투를 고수한다. 새번역에 와서 이 구절은 “하늘의 밝은 빛으로”로 다시 수정되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새번역』 단 12:3).

이방에서 교회를 택할 줄을 뜻하지 못하였어도(엡 3:5-6; 롬 16:25-26) 그 그림 모양은 있소. 이삭의 아내 될 계집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주인과 종이 맹세하고 작정한 일을 알지 못한 것 같이 교회도 하나님의 작정한 일을 다 알지 못하였소(엡 1:34; 롬 8:29-30).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는 것이 그 아들 이삭을 영화롭게 하려함이니 이와 같이 교회로 하여 예수를 영화롭게 하나이다. 이 늙은 종을 보면 믿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줄 알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주인의 것으로 알고 제 몸을 위하여 생각지 아니하고 주인의 생각만 하오(롬 12:1; 고전 3:22-23). 종이 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만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였으니 우리 믿는 자는 이같이 가야 하겠소.⁴³⁾

아브라함이 그 아들인 이삭을 장가들이는 장면에서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리고 있다. 얼핏 이 같은 해석은 알레고리적, 기독교적 해석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다는 초기 부흥운동기 때 한국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66권을 하나의 경전으로 읽으려고 했다고 보아야 한다. 신약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 요절로 구약 본문을 꼽고,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메시지를 신약 본문에서 발췌하였던 것은 이런 노력을 반영하는 증거들이다.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의 경전으로 읽었더니(in the context of Canon) 그 결과 구약의 기독교적 해석까지 덩으로 갈무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잠언 1장 10절(“죄인의 유인을 좇지 말지어다.”)을 해석 하면서 그 메시지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시도이다.⁴⁴⁾

초기 한국교회의 성서 해석은 이른바 경학을 표방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철저히 한 경전의 맥락에서, 즉, 통일성의 관점에서 읽고, 암송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따로 따로 들으

43) 「그리스도 신문」 5:35 (1901. 8. 29.), 280.

44) 「예수교신보」 2 (1907. 11. 27.), 13-14.

면서도 이 둘을 하나로 조화시켜 듣고 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따라가야 할 신앙과 삶의 기준과 방향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 경전 공부의 맥락에서 초기 한국교회는 성경 전체의 주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풀이할 수 있었다.

5. 해석으로서의 경학

교회는 경전을 해석한다. 경전은 신앙공동체에 의해서 해석된다. 경전이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지만, 동시에 신앙공동체는 경전을 해석하는 주체가 된다. 신앙공동체가 어떤 자세로 경전을 읽느냐에 따라서 경전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초기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이 던지는 책망 앞에서 항상 옷깃을 여몄다. 초기 한국교회의 교인들에게는 “감히 하나님의 성경을 비평하려는 마음이 없었다.”⁴⁵⁾ 성경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닫고자 했기 때문이다. 초기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동양 문화의 경전을 같은 수준에서 놓고 비교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초기 한국 개신교인들의 심성이 종교다원적 상황을 기독교 신앙의 울타리 안에 수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교회는 그 초창기부터 성경은 특정한 시공간을 살았던 사람이 기록한 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보았다. 그러

45) Goforth, *When the Spirit's Fire Swept Korea*, 28-29. “한국 격언에는 연장자가 연소자를 꾸짖을 권한이 있으며, 연장자의 말이 다 끝난 후에야 연소자가 할 말이 있으면 연장자에게 항변할 수 있다…그런데 한국인들은 사람에게 대한 가장 오래 된 책망은 성경 안에 있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성경으로 하여금 먼저 그들을 책망하게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성경을 감히 비평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종류의 성경 비평을 믿는다. 그러한 비평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 사람들이 모두 한국인의 정신으로 성경에 겸손하게 접근한다면…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면서도 결코 그 말씀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기록하였다는 것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신학월보」 7권 6호 (1909년)에 실린 “성경강론”이 그 단적인 경우이다.

- 一 문 성경이라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뇨
답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란 뜻이니라
- 二 문 누가 성경을 기록하였뇨
답 성신께서 여러 사름으로 하여곰 기록하게 하셨느니라
- 三 문 여러 사름들의 기록한 말씀 중에 무슨 뜻이 잇뇨
답 그 책들은 다르나 그 가운데 목덕과 뜻은 하나이니 우리의게 하나님의 뜻을 닐으고 또 하나님의 목덕을 알게 하는 뜻이니라
- 四 문 각각 다른 때에 각 사름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책들의 괴이히화답한 것이 우리의게 무엇을 그르치뇨
답 우리의게 성신께서 여러 사름으로 하여곰 기록하게 하셨스나 기록한 자는 오직 혼분이심을 그르침이니 곳 성신이니시니라
- 五 문 누가 능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듯게 데일 잘 그르치겠뇨
답 성경을 기록한 성신이니(요한복음 十四장二十六절) 그를 우리가 가치 우리의 선생을 삼을지니라(누가복음 十一장十三절)
- 六 문 성경의 크게 두 가지로 논호인 것이 무엇이뇨
답 구약과 신약이니 구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 사름들을 닐으심과 예수오실 것을 예언하심이오 신약은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도흔 소식과 그의 속량한 백성들의 교회를 닐으심이니라⁴⁶⁾

46) 「신학월보」 7:6 (1909), 5-6. 이 글은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그 발을 디딘지 24년이 되었을 때 정리된 성경관을 요약한다.

성서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기록자)는 여럿이다. 기록한 사람들의 숫자만 여럿이 아니고 그 시대와 환경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 성경 본문에서 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서 초기 한국교회는 성서 본문의 다양성보다도 성서 본문의 하모니(harmony)를 듣고자 한다. 동일한 주제가 얼마나 다르게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을 밝히기 보다는 여러 다양한 기록들이 어떻게 것처럼 동일한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여러 사람이 기록하였지만 그 목적과 뜻은 하나이다.”는 것이다. 기록자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성령께서 붙들고 계셨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은 한 분(성신)이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초기 한국교회는 성경에 여러 다양한 기록자가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는 데” 종사한다고 고백하였다.

성서 본문의 통일성을 이루게 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이다. “누가 능히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제일 잘 가르치겠느냐?”라는 물음에 “성경을 기록한 성신”을 꼽는다. 성령을 우리의 성서 해석을 이끄는 “선생으로 삼아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런 틀 속에서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으로 듣고자 하였다. 초기 한국교회는 구약 성서를 해석할 때 먼저는 그 자체의 고유한 문맥에서 살피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신약 성서의 빛에서 해석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구약을 대할 때 가졌던 태도(“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고후 3:15-16)와 흡사하다.

1904년 12월 25일에 발간된 「신학월보」 4권 12호에 실린 만국주일공과(주제는 평화의 왕, 성경은 이사야 9:1-7)는 초기 한국교회의 이런 구약 해석 방식을 터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⁴⁷⁾ 먼저 구약

본문을 해석할 때 그 고유한 문맥(배경)에서 본문을 검토한다. 그 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맥락에서 해석해 간다. 이사야가 전하는 “좋은 때”는 다름 아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첫째, 이사야가 전하는 한 아기의 탄생에 관한 소식은 예수가 오실 것을 전하는 계시이자 예언이다. 이사야 9장 1절이 말하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도 예수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갈릴리 지방의 구원 사역을 예견하는 것으로 읽는다. 스블론과 납달리가 갈릴리의 위와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나라가 흥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자들의 수가 흥왕할 것을 가리킨다. 셋째, 이사야 9장의 예언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성취되었다. 태어날 아이가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예수를 가리키는 여러 칭호를 나타낸다. 넷째, 예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예수의 교회가 그의 나라이기에 교인 수의 부흥에서 예수의 나라가 흥왕하고 있다고 깨닫는다. 이런 깨달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주셨으니 우리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초기교회는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의 오심과 예수가 오셔서 성취할 말씀으로 읽었다. 신약 성서에 수록된 하나님의 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말씀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깨닫는 힘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9장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해석 방식을 초기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하고자 했던 기독교 경학의 지평에서 보면 그것은 일종의 “본문의 본 뜻을 경전으로 찾아내는”(以經證經)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47) 「신학월보」 4:12 (1904), 506-510.

물론 성경 해석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신문」 10권 37호(1906년 9월 13일)에 실린 “론설”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야기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논평하고 있다. 이 논설은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사도행전 15장 29절, 계시록 2장 14-20절 등에 근거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꾸짖으면서 이 구절과는 다른 뜻의 가르침이 로마서 14장 2절에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⁸⁾ 예컨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말라.”(고전 10:21)는 말씀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롬 14:2-3) 말씀 사이에 서로 긴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 한국교회도 성서는 바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었다고 생각했을까? 차일즈(B. S. Childs)의 용어대로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해석하기”(Interpretation in Faith)에서 판가름 난다.⁴⁹⁾ 이 때 바른 믿음으로 해석했는지의 여부는 신앙공동체가 판단한다. 이것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주체가 신앙공동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성경 본문을 놓고 벌이는 가능한 해석과 억지 해석을 판가름하는 최종 심판은 신앙공동체가 감당한다는 것이다. 신앙공동체는 경전을 해석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초기 한국교회 이야기도 바로 이런 신앙공동체와 경전의 관계를 일깨워주고 있다.

48) 「그리스도 신문」 10:37 (1906. 9. 13.), 877-878.

49) B. S. Childs, “Interpretation in Faith: The Theological Responsibility of an Old Testament Commentary,” *Interpretation* 18 (1964), 432-449.

6. 맺음말- 초기 한국교회의 경전 공부와 해석학적 영성

한국교회는 스스로 경전을 깨우친 사람들로 시작되었다. 이응찬, 서상륜, 이수정 등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의 초대교회는 제대로 파악될 수 없다. 가령 1870년대에 권서인들이 이 땅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말로 된 성경을 반포하는 자로 나섰다는 것은, 그런 권서인들이 있었기에 한국 땅에 기독교 신앙공동체가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한국교회의 초창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저울(canon)로 삼았던 자들이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에 새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본격적으로 확산시켰다. 초창기 한국교회의 주역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자들이다. 하디의 고백이나 길선주의 설교는 마치 주전 7세기 유다 왕 요시아가 성전 수리 중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애통해 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던”(왕하 22:11) 사건과도 같다. 요시아 때문에 유다 왕국에 종교개혁이 단행되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영성을 지녔던 하디와 길선주를 들어서 이 땅에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셨다. 하디와 길선주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던 것은 아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에 동참하였던 수많은 한국 교인들은 모두 성경 말씀을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하디처럼, 길선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신앙공동체(교인들)가 있었기에 한국교회는 1900년대 초기에 대부흥운동이라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적극 동참할 수 있었다. 개혁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건이 있었다. 각성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민

감하게 수용하는 체험이 있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는” 결단이 있었다.

초기 한국교회는 구약과 신약을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경전으로 읽었다. 당시의 성경 해석은 요즈음 우리 눈으로 보면 비평 이전의 단순 독서에 속한다. 성서 해석 방법론이라는 잣대로 재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초기 한국교회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체험에 분명 경전 공부의 목적을 두었다.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가(多讀) 집중해서 읽고(精讀), 집중해서 읽다가 암송(暗誦)했으며, 암송하며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우쳤다. 시편 기자가 간구했듯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라는 기도 속에 초기 한국교회의 성서 읽기의 열정이 담겨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 경학의 세계가 펼쳐졌던 것이다. 사서삼경을 읽으면서 오늘을 목상하던 전통을,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경 해석으로 대체시켰던 것이다. 동양 문화의 경학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새롭게 수렴하여 경전을 듣고, 읽고, 배우고, 쓰고, 만지는 경전 공부의 풍속을 뿌리 내리게 하였던 것이다.

초기 한국교회의 경전 공부는 비평 이전의 단순 독서나 알레고리적 해석에 치중해 있다. 이 같은 한국교회 초기의 경전 이해는 192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한국교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서구적 성서 해석방법이 낳은 경전해석(성서 해석)의 시도와 좋은 차별을 이룬다.⁵⁰⁾ 역사적/역사비평적 성서 해석이 성서 본문 저자의 의

50) 왕대일, “한국 구약학의 회고와 진단과 전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 『신학연구 50년』, 52-66; 왕대일, “오경과 한국신학,” 김영진 외 공저, 『구약성서개론: 한국인을 위한 최신 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695-709. 이 땅에 최초로 한국인이 쓴 성서개론은 1916년에 창간된 「신학세계」에 양주삼이 연재한 “구신약전서총론”(1916년)이다. 1920년대에 들면 성서의 권위 문제, 모세 오경의 저자 문제 등과 관련된

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을 객관적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초기 한국교회는 말씀을 읽다가 하늘이 열리는 경학의 세계를 경전 공부의 초점으로 보았다. 거기에는 초창기 한국교회의 영성적 감수성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의 해석이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은 그들의 해석에 “믿음으로 해석하기”라는 내적 기준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 그 해석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는 신앙공동체이다. 신앙공동체에 꽤히 수렴되는 가르침만이 참된 해석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경전은 하늘의 소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 하나님의 편지이다.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초기 한국교회 대부흥운동기를 살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경전은 우선 경청의 대상이다. 비평이나 탐구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다. 초기 한국교회는 경전이란 배우고 익히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묻고 답하며, 암송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서당에 모여 경전을 한글자씩 소리 내어 읽고 공부하던 전통이 한국교회의 사경회에 그대로 유입되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사경회에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성경을 어제의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한국 백성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경전을 읽고 경전의 소리를 듣는 중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으며, 마음 속에 평화와 기쁨이 샘솟는 것을 체험하였다. 한국교회의 초기 사경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모임

고등비평이 소개되어 논쟁이 일기 시작한다. 「신학세계」에 게재된 김인영의 “성경의 진화”(1927-1928년), “오경의 전설과 비평”(1929년)을 비롯해서 1918년에 창간된 「신학지남」에 기고한 선교사 라부열(R. L. Robert)의 “성서의 난제론”(1919년), 선교사 어도만(W. C. Eerdman)의 글 “고등비평”(1920년), “모세 오경의 진위”(1924년) 같은 글들이 거기에 속한다. 그러다가 1935년 『아빙돈 단권 주석』 사건에서 역사비평적 성서 해석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

이었다.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깨닫는 자리였다.

초기 한국교회의 자료에 따르면 경전을 읽고 낭송하며 암송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성신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일이었다. 그해야 힘 있는 전도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보았다(막 1:17). 사경회가 부흥운동의 장(場)이었다는 것은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성격을 살피는 데 중요하다. 사경회에서 한국의 신앙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성령의 임재가 경전 공부를 이끄는 것이다. 그럴 때 해석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과정이 된다. 기록된 글말을 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는 안목이 열리게 된다.⁵¹⁾ 해석학적 영성이 여기에 자리 잡는다.

성서 해석의 이론에서 판단할 때 초기 한국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하나로” 이어서 읽었다. 구약을 해석하면서 신약을 요절로 뽑았고, 신약을 해석하면서 구약을 요절로 제시하였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였다. 예컨대 한국교회는 그 초창기부터 성경에는 하나로 통일된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초기 한국교회가 간직했던 성경관을 드러내는 자료로 머물지 않는다. 성경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때로는 다중적인) 증언을 하나로, 하나의 콘서트(concert)로 들었다는 평가로 그치지 않는다.

초기 한국교회의 성경 해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란 성서 해석학적 방법론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배운다. 초기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성적으로 붙들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해독할만한 신앙 사건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초기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은 성서 해석방법

51) 이문장, 『한국인을 위한 성경연구』 (서울: 이레서원, 2003), 61.

론이 성경 말씀을 “푸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동적으로 보여 주었다. 성서 해석방법론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니다. 건전한 성서 해석방법론이 동반되지 않는 성서 해석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으로 말씀을 짜깁기하고 말 우려가 있기에 성서 해석 방법론은 제대로 익혀야 한다. 그러나 초기 한국교회가 접촉했던 성서 해석의 세계를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새삼 각성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의 세계가 ‘풀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해석자에게 하나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1903년-1907년의 대부흥운동은 사경회라는 장(場)에서 처음 열렸지만, 그 대부흥운동 기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였던 신앙 사건은 역으로 성경 해석의 지평을 영적 감수성이 충만한 세계로 새롭게 열어 주었던 것이다.

<주요어>

경학, 한국교회, 부흥, 경전, 신앙 공동체, 사경회, 서당

<Key Words>

Study of Canon, Canon, Revival, Faith Community, Bible Class Meeting, Schoolhouse

참고문헌

1차 자료

- 「그리스도 신문」 5:34 (1901. 8. 21.)
「그리스도 신문」 5: 35 (1901. 8. 29.)
「그리스도 신문」 10: 6 (1906. 2. 15.)
「그리스도 신문」 10:10 (1906. 3. 8.)
「그리스도 신문」 10: 24 (1906. 6. 14.)
「그리스도 신문」 10: 25 (1906. 6. 21.)
「그리스도 신문」 10: 29 (1906. 7. 19.)
「그리스도 신문」 10: 30 (1906. 7. 26.)
「그리스도 신문」 10: 33 (1906. 8. 16.)
「그리스도 신문」 10: 37 (1906. 9. 13.)
「그리스도 신문」 10: 39 (1906. 9. 27.)
「신학월보」 1 신년호 (1901)
「신학월보」 1:2 (1901)
「신학월보」 1: 12 (1901)
「신학월보」 3: 3 (1903)
「신학월보」 4: 4 (1904)
「신학월보」 4:10 (1904)
「신학월보」 4:12 (1904)
「신학월보」 5:2 (1907)
「신학월보」 7: 6 (1909)
「예수교신보」 2 (1907. 11. 27.)
「예수교신보」 4 (1907. 12. 25.)

Gale, J. S., "Elder Keel,"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July, 1907), 493-495.

Goforth, J., *When the Spirit's Fire Swept Korea*, Grand Rapids: Zondervan, 1943.

- Hardie, R. A., "R. A. Hardie's Report," *Minutes of the Eigh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4*,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4, 25-28.
- Hardie, R. A., "R. A. Hardie's Report," *Minutes of the Seven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3*,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3, 25-28.
- Lee, Graham.,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Korea Mission Field* 3 (March, 1907), 33-37.
- McIntyre, J., "Mr. McIntyre's Report," *The 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 (Jul. 1, 1880), 278-279.
- Moffett, S. A., "An Educated Ministry in Korea," *The Interior XXXVIII-1916* (Feb. 14, 1907), 1-4.
- Moffett, S. A., "Policy and Methods for the Evangelization of Korea,"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XXXVII-5 (May, 1906), 235-248.
- Paik, G. L.,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3rd. ed.,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80.
- Shearer, R. E.,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 Grand Rapids: Eerdmans, 1966.
- Soltau, T. S., *Korea The Hermit Nation and Its Response to Christianity*, New York: World Dominion Press, 1932.
- Underwood, H. G.,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1908.
- Underwood, H. G., "The Growth of the Church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Feb. 1908), 100-101.
- Turley, R. T., "Ping Yang in Korea," *The Bible Society Monthly Reporter* (July, 1895), 143.

2차 자료

김승태, 류대열,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 성장과 수

- 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김정우, “다산 정약용과 브레바드 S. 차일즈의 유신론적 경전해석학 비교 연구,” 『종교연구』 38 (2005. 봄), 61-92.
- 박명수, 『한국교회 부흥운동 연구』, 서울: 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 옥성득, “평양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한국 기독교와 역사』 25 (2006. 9.), 57-95.
- 왕대일,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빛나게 하소서: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대한 구약학적 평가,” 영적대각성 100주년 기념 학술연구회 편, 『각성.갱신.부흥』,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117-168.
- 왕대일, “오경과 한국 신학,” 김영진 외 공저, 『구약 성서개론: 한국인을 위한 최신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693-720.
- 왕대일, “한국 구약학의 회고와 전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신학연구 50년』, 서울: 혜안, 2003, 47-92.
- 이덕주, 조이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 서울: 한들, 1997.
- 이덕주, 『한국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서울: 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 이문장, 『한국인을 위한 성경연구』, 원리편, 서울:이레서원, 2003.
-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1903-1908』,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 조은하, “온전하고 재미있던 날,” 영적대각성 100주년 기념 학술연구회 편, 『각성.갱신.부흥』,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2006, 443-500.
- Childs, B. S., “Interpretation in Faith: The Theological Responsibility of an Old Testament Commentary,” *Interpretation* 18 (1964), 432-449.
- Harrisville, R. A. and Sundberg, W., *The Bible in Modern Culture: B. Spinoza to B. Childs*, Grand Rapids: Eerdmans, 2002.

<초록>

초기 한국교회의 경전과 신앙공동체

왕대일

(감신대 교수, 구약학)

한국교회는 서양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기독교 경전을 읽고, 번역하고, 목숨 걸고 반포하던 전도자들로 시작되었다. 이런 바탕이 있었기에 한국교회의 초창기(1903-1909년)는 대부흥운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한국교회의 초창기 대부흥운동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는”(왕하 22:11) 결단을 이루었던 자들이다. 초창기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였다. 이 체험은 하루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동양 고전을 한 절씩 읽고 암송하며 토론하던 오랜 서당식 경전 공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초창기 이 땅의 교인들은 성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성서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성서를 공부하였다. 본문의 역사적 의미가 아니라 경전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지를 찾고자 하였다. 과거를 연구하기보다는 오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한 경전의 맥락에서, 통일성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시각에서 읽었다.

초기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성적으로 붙들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해독할만한 신앙사건이 선행하

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경전 공부의 장에서 대부흥운동이 열렸지만, 대부흥운동에서 얻은 신앙 체험은 다시 경전 공부의 지평을 영적 감수성이 충만한 세계로 이끌어갔다.

<Abstract>

Canon and Faith Community in the Early Period of Korean Christianity

Prof. T. I. Wang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role of canon in Korean Christianity. Christian canon has been read, interpreted, and distributed from the beginning by faith communities in Korea. The great revival movement, swept over the young Korean churches(1903-1907 C. E.), was not a sudden outbreak. It was rather the offspring of the religious awakening of the people who experienced the remarkable encounter with the divine reality in their reading of the Bible(II Kings 22:11). This spirituality revitalized Korean custom of studying Chinese classics in village schoolhouses.

Korean spirituality, which was built by the constant quest of listening to the voice of God while reading the canon, opened the way to convince that the biblical text was to be read in order to comprehend God's saying in contemporary

world. It was not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text for the young Korean church to find out. The hermeneutical model was pre-critical; yet it represented the principle that the texts of canon were to be understood in their canonical context; that is, how were they harmonized to resignify the faith in Christ.

This experience first happened in the context of reading, studying, and learning the Bible. Later, it was religious awakening that transformed the character of studying Bible into the horizon of spiritual reality.